

햄버거·소맥 등 먹거리가격 또 뚝다...전기요금도 변수

맘스터치 5%·맥도날드 3.7%·주류 6%대 ↑ 전기료 이달 인상 결정 유력...인상분 변수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햄버거와 주류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연말 고물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안한 글로벌 경제에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이달 인상될 전기요금 수준이 물가 변수로 거론된다.

5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햄버거와 유제품, 주류업계 등이 출고가를 올렸다. 유가와 환율 등 국제경제 불안 요소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에도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올초에 이어 추가로 인상된 것이다.

유제품 가격은 8%대 원유(原油)가격 인상에 덩달아 올랐다. 서울우유와 매일우유, 남

양유업이 생크림과 요거트 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원재료인 우유를 비롯해 설탕·소금 등의 가격이 뛰자 다른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맥주 '켈리'와 '테라',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를 평균 6.8~6.9% 인상한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식료품 및 외식 가격 오름세까지 더하면 연말에 고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햄버거 가격도 줄인상됐다. 맘스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닭가슴살을 이용하는 버거 4종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올초에 이어 또 올랐다.

맥도날드는 이달 초 빅맥을 포함 총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다. 이에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이 5200원에서 5500원이 됐다.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일부 제품가를 5%대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경쟁사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버거킹과 롯데리아 등도 관행처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고물가 분위기는 3개월 연속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1년 전보다 3.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8월(3.4%), 9월(3.7%)에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식료품 및 외식 가격 오름세까지 더하면 연말에 고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에너지 요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차례 에너지난을 겪은 데 이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까지 불거지며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의 산유국까지 확대된다는 것으로 관측되며, 국제 유가는 예상 만큼 크게 요동치진 않고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등도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다.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다. 앞선 에너지난 때 미처 올리지 못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야기한 전기요금도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고물가에 충격을 앞둔 상황이란 변수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4분기 인상이 유력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수준이 문제다. 한전의 적자 해소만을 보고 올리기엔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이행한다면 올해 45.3원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번에)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요금 조정이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가족 전염병 발생 등의 리스크도 변수다. 처음보는 렘피스킨병(LSD)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까지 겹치면서 발병 농가에서 소와 오리 등을 살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소 바이러스 감염병인 렘피스킨병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렘피스킨병 사태가 농가 피해를 넘어 물가 인상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안정화를 위해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권기자



배추 가격, 정부 수급안정 대책 시행 이후 하락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 뒤 배추 등 채소들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고랭지 배추 포기당 가격은 3308원, 가을 배추는 3688원으로 전일(4923원, 4626원)보다 32.8%, 20.3% 각각 하락했다.

세계 식량 가격 3개월 연속 ↓...유제품만 ↑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설탕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곡물과 유지류 등도 가격이 내렸지만 유제품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6포인트(p)로 전월(121.3p)보다 0.5%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119.2p) 이후 가장 낮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 상반기 등락을 거듭하다가 7월(124.1p)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6월(93.3p)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2021년 평균 125.7p를 기록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치솟아 그해 3월 역대 최고치(159.7p)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곡물(1.0%), 유지류(-0.7%), 육

류(-0.6%), 설탕(-2.2%)는 하락했지만 유제품(2.2%)만 상승했다.

유제품은 동북아시아 분유 수요 증가와 서유럽 우유 생산량 부족, 엘 니뇨 영향에 따른 오세아니아 지역 우유 생산 감소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제 분유 가격이 상승했다.

버터는 서유럽에서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치즈는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오세아니아 수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다.

전월 162.6p까지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설탕가격지수는 하향 전환했다. 사탕수수 재배지인 브라질에서 빠른 속도로 생산이 진행되고, 미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 약세, 브라질 내 에탄올 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다.

다만, 향후 국제 설탕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계속되고, 물류 장애로 브라질산 설탕 수출이 지연되고 있어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기자

“이래도 안 사실래요?”...더 예쁘고 편리해진 생활가전들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격과 혜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집안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과 감성 인테리어 가전이 주목받고 있다. 가전도 당당한 인테리어 소품이 된 것이다.

여기에 집안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도 하나의 중요 선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이 트렌드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내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특유의 투박한 느낌이 없고 감성을 더한 디자인을 갖춘 가전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쿠첸은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한 '브레인' 밥솥을 선보이고 있다. 조약돌을 모티브로 한 제품 외관은 밥솥 본연의 형태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요소를 배제해 주방, 거실 등 어디에 놓을 수 있다. 밥솥 색상은 오토밀과 보리가 연상되는 화이트, 베이지 2종이다.

쿠첸 관계자는 “브레인 밥솥은 비움과 절제의 미학이 담긴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락앤락의 자회사 제니퍼룸은 최근 건조한 공간의 습도 밸런스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테이블 조명의 역할을 더해 따뜻한 공간 분위기를 완성하는 '에어미스트 무선 조명 가습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사용 편의성이 좋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조명 가습기의 기능은 물론 오브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조명은 가습 기능과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계질 내내 무드등과 테이블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 퍼니처'는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추세에 맞춰 인테리어와 편의성까지 고려하는 사용자를 위해 나온 융복합 공기청정기다. 테이블로 활용 가능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나왔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웨이 '비레스 펠트케어'는 어느 공간이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강조한 가구형 안마의자다. 세련된 외관과 작은 크기로 릴랙스 체어처럼 연출할 수 있다. 안마의자에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 포근함을 더했다. 색상은 헤이지 블루, 샌드 베이지, 테라코타 핑크, 미스틱 그레이이다. 공간 분위기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가격·혜택은 옛말...달라진 가전 선택 기준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눈과 비, 미세먼지까지 외부 유리창이 더러워질 요인은 많지만 개인이 청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로봇가전 브랜드 에코백스는 '원봇 W1 프로'를 선보였다. 바닥 청소에만 이용되던 로봇 청소 기술로 손쉽게 유리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다.

이 제품은 양방향 크로스 오토-스프레이 기술로 내장된 60ml의 물탱크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돼 부착된 특수 극세사 걸레로 유리창 위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닦아준다. 추락에 대한 우려도 안전장치로 대비했다. 2800Pa의 흡착력, 방진시에도 30분간 부착을 유지하는 기능, 80kg까지 지탱하는 잠금장치로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도 번거로운 집안일 중 하나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시켜 버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 쉽게 해결된다.

쿠쿠전자가 출시한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분해의 핵심인 미생물 관리 기술력으로 받은 특허 6개를 적용했다. 음식물처리기 바닥에 장착된 스마트 수분 센서와 미생물 관리 알고리즘으로 미생물 양육·관리에 필수 조건인 습도를 알맞게 조절한다. 사용자가 쓰레기를 넣기만 하면 별다른 작업이 나 조작할 필요 없이 처리가 끝난다.

'스마트카라 400 프로(Pro)'는 수분 많은 한

국 음식에 최적화된 고온 건조분쇄 방식 '수분제로기술'을 탑재해 음식물을 최대 95% 줄여주는 음식물처리기다. 독보적인 히팅 플래이트 기술과 강력 분쇄 기술로 각종 장류가 첨가된 음식들은 물론 질기고 단단한 음식 처리도 가능하다. 음식물이 추가 발생할 경우 작동 중에도 중간 투입을 할 수 있다. 하루 최대 12L까지 처리한다.

고가의 가죽 신발은 물로 세척할 수 없어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여성들이 자주 신는 롱부츠는 겨울이 지난 후 세탁소에 맡겨 일년에 1~2회 세척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발 구조상 밀폐돼 있어 쉽게 냄새가 나고 세균이 퍼지기 쉽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의류처럼 매일 빨 수 없어 관리가 힘든 신발을 탈취·건조·살균 등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준다. 2023년형 신제품은 '멀티 트레터'가 추가돼 한번에 최대 4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제트 슈트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분사해 1차로 땀 냄새, 시큼한 냄새 등으로 종류별로 입자를 분리한 뒤 '냄새분해필터'가 냄새를 최대 95% 없애준다. 땀이나 비, 눈에 젖은 신발은 40도 이하의 '저온 섬세 건조' 기술로 손상 없이 보송하게 건조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보온 도시락·병 많게는 58% 할인”...락앤락, 수능기획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12일까지 진행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관련 상품 할인 기획전을 네이버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연다.

4일 락앤락에 따르면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보온 도시락, 보온병 등의 제품을 최대 58%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텀블러 중복 구매 시 주

가 할인,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100명 대상 스타벅스 기프트콘 증정 등의 혜택도 있다.

기획전 대표 제품은 스텐 보온 도시락, 리틀립 푸드저, 리틀립 마강 보온병, 데일리 마카롱 텀블러, 데일리 슬림핏 원터치 텀블러, 매트르 투웨이 텀블러, 매트르 머그 텀블러, 뉴자이언트 핫팩 보온병 등이다.

뉴스